

# 익산시, 벼 농가 경영 지원

### 시비 직불금 120억원 상향·타작물 재배 확대... 농업 재배구조 개선

익산시는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벼 재배농가에 대한 경영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직접 현장에서 희망농정위원회, 농업회사, 농민단체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시는 판로 확대와 재배구조 개선 등 농가들의 경영 지원을 통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먼저, 시는 안정적인 농업경영 기반 마련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시비 직불금을 기존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이 가운데 일부를 지역화폐 디어로 송과 연계해 농가 소득 견인은 물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체계 구축을 위해 CI, 허브 등에 납품하는 기업 맞춤형 쌀 공급도 확대한다.

시는 전체 생산량의 27%, 3만3,000여톤 수준의 기업 맞춤형 익산쌀 공급 규모를 32%, 3만8천여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 면적

은 총 3,360ha이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8배에 달하는 대단위 규모이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5% 증가한 3,850ha로 면적을 늘려 3만8,171톤을 공급할 예정이며 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 납품 외에도 신규 판로 개척에도 박차를 가한다.

시는 탐마루 쌀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제주도와 수도권 중심으로 홍보·관측 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쌀이 생산되지 않는 제주지역을 공략해 매년 1천여톤의 익산 쌀을 공급하고 있으며 제주도까지 운송 물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지속 가능한 영농 환경을 위해 벼 중심에서 타작물로 재배구조 전환도 시도한다.

지역의 타작물 재배면적은 지난 2021년 180ha에서 올해 284ha로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340ha까지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타작물 재배를 장려하기 위해 생산장려금을 ha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타작물 전환 시 필요한 영농기술, 생산기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벼 수확기를 맞아 올 연말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도 추진한다.

매입물량은 공공비축미 9천504톤과 시장격리곡 1만640톤을 포함해 2만144톤이다. 이는 올해 도내 매입 규모 17만1천547톤 중 11.7%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전년 대비 178%가 증가한 수치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는 11월 30일까지, 건조벼는 12월 31일까지이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구분없이 매입하여 농가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신속한 양곡관리법 개정과 의무수입쌀의 해외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쌀값 안정화, 가루미 재배면적 확대·유통,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재개 등의 시책을 전폭도 및 중앙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정현율 시장은 "지역의 농업인이 안심하고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지난 22일 재광명군산향우회(대표 민길오) 300여명이 군산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 ‘고향사랑 기부제 1석3조 효과’

### 재광명군산향우회·양기대 국회의원 군산 방문

군산시는 지난 22일 재광명군산향우회(대표 민길오) 300여명이 군산을 방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경기도 광명에 살고있는 군산 향우들과 양기대 국회의원이 지역 탐방과 고향사랑 기부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

재광명군산향우회원은 고군산도에서 몽돌해수욕장, 명품물레길, 짚라인 등을 방문해 고향 군산의 발전을 확인했다.

또, 선유도를 관광 후 은파유원지와 근대시간여행의 메카인 근대건축관, 근대 미술관 등을 관람했다.

민길오 회장은 "다시 찾은 내고향은 놀라게 달라져 있었다.

도로도 넓어졌고 해수욕장 주변이 정비가 잘되어 있어 군산의 대표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말해 남다른 감

회를 밝혔다.

이날 김임준 군산시장은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양기대 국회의원과 재광명군산향우회원 30여명을 맞이했다.

김 시장은 고향을 방문하는 재광명향우회원에게 "타지역에 살고 있어도 항상 군산발전과 애乡심을 가진 향우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고향 군산이 되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날 행사에 이길용 기획예산과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1석3조의 효과가 있다며, 기부자에는 소득해택과 답례품을, 군산시에는 군산발전과 시민에게 행복자원을, 지역생산자는 답례품 생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라고 향우회원에게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2023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 인상

군산시는 24일 출산기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을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산시 출산지원금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가 지난 21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출산지원금과 출산축하금(이동당 군산시사랑상품권 30만원 지급)으로 구분해 지급했던 것을 출산지원금으로 통합해 지급한다.

통합된 출산지원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00만원, 넷째 600만원, 다섯째 이상 1500만원으로 인상 지급 예정이며, 첫째·둘째는 일시금으로 셋째부터는 분할 형태로 신청 계좌에 지급된다.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군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신생아를 출생시킨 가정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 식품 ‘유통기한’ ‘소비기한’으로 변경

군산시는 오는 2023년부터 식품에 표시되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 소비기한(Use-by date)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써 소비자는 그동안 유통기한에 관리자의 중심인 유통기한(Sell-by date) 설정으로 기간을 확인해 왔다.

그간 제조기술의 발전, 포장재질 변화, 유통환경의 개선으로 식품의 안전기간이 늘어나고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식품 폐기물 감소와 식량 낭비 절감을 위해 소비기한을 도입, 글로벌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 소비기한 설정해야한다고 제기해 왔다.

이에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설정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1.8.17.)하고 식품표시광고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정현율 익산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준비 총력’ 당부

### 내년 1월부터 시행... 관련 조례안 시의회 제출·답례품 선정위 구성 등 사전 준비 속도

익산시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정 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인구감소 대응, 재원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이다"며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이나 타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앞서 시는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어 농협 익산시지부와 애乡운동본부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시행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 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자원봉사 분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자원봉사자 으뜸 익산이라는 브랜드 구축을 위해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 시장은 "자원봉사는 시민들과 단체 간 다양한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제도이다"며 "담당 부서 뿐 아니라 전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언급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최경수씨, 익산 국화분재 경진대회 대상

익산시가 개최한 국화분재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상에 황등면의 최경수씨가 선정됐다.

시는 중앙체육공원에서 국화분재 연구원들이 직접 재배해 출품한 목·석부작, 분경작, 연근작 등 다양한 형태의 분재작품 200여점에 대한 경진대회를 개최해 이같이 선정됐다.

경진대회는 국화분재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13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최고상인 영예의 대상에는 전문가반 최경수(황등면)씨가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은 김석부(삼동)씨, 우수상은 백은정 씨 외 8명, 장려상은 김강석(삼기면) 씨 외 3명이 각각 선정됐다.

대상에 선정된 최경수 씨 작품은 석과 분재수형과 뿌리생육, 개화 등이



뛰어나 출품작 중 최고 평가를 받았다.

이번에 출품된 200여점의 작품들은 여름 무더위와 장마,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특별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이뤄낸 열정과 노력의 산물이다.

국화분재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중앙체육공원 국화축제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